

## 알레르기와 함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 서울의대 피부과  
은희철



1970년대 말 필자가 레지던트 교육을 받던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말기의 정치적으로는 매우 우울한 시기였다. 피부과에서는 이 시기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질환들을 보게 되었으며 필자는 이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 모든 일에 첫발을 잘 디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니켈에 의한 피부염을 2레”를 보고하게 된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를 마치고 고려대학에 강사로 잠시 있을 당시 창설한지 얼마되지 않은 알레르기 학회에서 “접촉피부염의 원인 가능식물에 대한 역학적 고찰”이라는 강연을 한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더욱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해에 영국문화원 장학생으로 국제접촉피부염연구위원회의 주 창설 멤버의 하나인 Wilkinson선생 밑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당시 표준화되었던 접촉피부염의 진단 방법인 첩포검사(피부접촉검사)를 국내에 도입하고 한국접촉피부염연구위원회를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활성화시킨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영국에서 귀국한 1981년, 대한알레르기학회(명칭 변경 이전)는 서울지부회를 창설하게 되어 필자는 김종진 서울지부회 회장을 보좌하는 총무(1981-85)역을 맡게 되어 한동안 학회 일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알레르기학회 재무(1990-92)와 알레르기학회 서울지부회 회장(1997-2000)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본인으로서는 행운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

접촉 알레르기로 발생하는 접촉피부염의 경우는 일반 알레르기질환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어 점차 이와 같은 연구 업적들은 피부과에서 따로 수행하게 되었고, 또한 피부과의 기초 연구 발전과 실험실 확충과 행정, 세계피부과학술대회 유치를 포함한 피부과학회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느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학문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하여 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2015년 세계알레르기학술대회(World Allergy Congress)를 유치하게 된 것은 현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금년 5월 24-29일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100여 개국 이상에서 약 12,000명이 모여 22차 세계피부과학회 학술대회를 성대히 치렀다. 대회장을 맡아 유치 단계부터 약 10년간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온 본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하며, 2015년 한국에서 열

릴 세계알레르기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성공적인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언**

### **1. 정관의 완전한 이해 및 이의 활용**

많은 자세한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통독하고 추진하여야 문제가 덜 발생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 **2.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정관이나 공정거래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이미 개발된 항목을 활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다양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 종자돈이 필요함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3. 조직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이 추진됨으로 유치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직위원회를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발탁하여야 한다.

### **4. 대행사(Professional Conventional organizer, PCO)와의 관계 설정**

- 1) 철학적, 경제적 관점 합의: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 2) 조직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모든 것을 대행사에게 일임하는 것은 금물이다.
- 3) 효율적인 업무 시간 활용: 유럽과 미국의 시간대를 잘 활용한다.
- 4) 지속적 관심 필요: 장기간의 업무 추진에 지속적 활성화 자극이 필요하다.
- 5) 창의적 업무 요청: 대행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필요한 업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 6) 학회 규모에 따른 일정 조정: 큰 학회일수록 배 이상의 시간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 **5.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공유**

전자 메일은 현대 사회에서 잘 활용하면 신속한 정보공유가 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후에 일하는 사람만 알게 됨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 **6. 전략사령부 개념 도입 및 활용**

학회 임박하여서 뿐 아니라 학회 기간 중에서도 핵심 참모들은 이와 같은 소명 의식으로 임하여야 한다.